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①

恭聞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공문 인인이도자 인지이기
離地求起 無有是處也
이지구기 무유시처야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미일심이구무변번뇌자 중생야
悟一心而起 無邊妙用者 諸佛也
오일심이구무변묘용자 제불야
迷悟雖殊 而由一心則離心求佛者
미오수수 이요유일심즉이심구불자
亦無有是處也 自妙年 投身祖域
역무유시처야 자묘년 투신조역
遍參禪肆 詳其佛祖 垂慈爲物之門
변참선사 상기불조 수자위물지문
要令我輩 休息諸緣 虛心冥契
요令我輩 休息諸緣 虛心冥契
요령야배 휴식제연 허심명계
不外馳求 如經所謂 若人欲識佛境界
불외치구 여경소유 악인욕식불경계
當淨其意如虛空等之謂也
당정기여허공등지위야

죽림의불법 장식아인
區區於利義之途 汨沒於風塵之際
구구어이익도 골몰어풍진지제
道德未修 衣食斯費 雖復出家
도덕미수 의식사비 수부출가
何德之有 嗚呼欲離三界
하덕지유 휘부욕리삼계
而未有絕塵之行 徒爲男子之身
而未有絶塵之行 徒爲男子之身
而無丈夫之志 上乘弘道 下開利生
而無丈夫之志 上乘弘道 下開利生
이무장부지지 상과홍도 하광이생
中興四惡 誠以爲恥 以是長歎
중흥사은 성이위치 이시장탄
중부사는 성이위치 이시장탄
其來久矣
기래구의

무릇 보고, 듣고, 외고, 익히는 자
가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마음을 찾
아 스스로 지혜로써 관조하여 말한
것처럼 되어간다면, 참으로 스스로가
불심을 닦고 스스로가 불도를 이루어
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삼가 들으니 '방에서 넘어진 사람

한마음 미혹해 번뇌 일으키면 중생

한마음 깨달아 묘용 일으키면 부처

은 땅을 밟고 일어난다' 하였다. 땅
을 떠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마음이 미혹해서 끝없는 번
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고, 한
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묘용을 일으
키는 사람은 부처이다. 미혹함과 깨
달음이 비록 다르지만 요는 마음이므
로 마음을 떠나 부처를 찾는 것은 또
한 있을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 무리들
이 조석으로 하고 있는 행적을 보면
불법을 빙자해서 아상(我相)과 인상
(人相)을 꾸미고 이해 득실의 길에만
매달리며 세속적인 일에만 골몰하여
도덕은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
니 비록 다시 출가할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슬프다. 삼계를 여의고자
하나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이 없으니
한잔 남자의 몸일뿐 대장부의 뜻이라
고는 없다. 그래서 위로는 큰 도를 어
기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이 없고, 가운데로는 네 가지 은혜
를 저버리는 꼴이니 참으로 부끄럽
다. 내가 이를 장탄식하여 온 지가 오래
였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나는 소년시절부터 조사문에 투신
하여 두루 선방을 찾아다녔는데, 불
조(佛祖)께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풀
신 문을 살펴보건대, 우리들로 하여
여금 모든 반연을 쉬고 마음을 고요
히 비워서 밖으로 구하지 않게 함이
었다. 말하자면 경에서 "만일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처럼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凡見聞諸智者 當起難遇之心
법견문승습자 당기난우지심
自用知慧觀察 如所說而修則可
자용지혜관찰 如所說而修則可
자용지혜관찰 여소설이수족가
謂自修佛心 自成佛道 而親親佛恩矣
謂自修佛心 自成佛道 而親親佛恩矣
위자수불심 자성불도 이친보불은의
然返觀我輩 朝暮所行之迹
연반관야배 조모소행지적
則應依佛法 裝飾我人
則應依佛法 裝飾我人

이번 호부터 지눌(知訥) 보조사(普照師
1158~1210)의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
文)》을 연재한다. 이 글의 내용은 당시 출가
수행승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있는 것을 개탄하고, 나아가서 불가의
본분인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뒤이어나가지
고 호소한 글이다.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
늘날 한국 불교의 병폐를 파헤친 것 같아 출가
자나 재가자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법문이
라 하겠다. 이 글을 읽고 함께 발심하여 좀
더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큰 스님과의 대화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이제는 절기상으로 원만한 가을이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무
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아 삼각산 자락에 있는 운문사로 스님
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구슬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언제 아셨는지 주장자에 의지해 문밖까지 마중을 나오신 스님
의 해맑은 미소를 대하니 신동성이를 오르던 피곤함이 눈독듯
이 사라졌다.

40여년동안 어린이 찬불가 포교를 수행이라 생각하고 전념해
오신 스님께 어린이 불을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여쭙었다.

운문스님은 "새싹들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천진불심을
잘 키워주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불사
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노래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찬불가란 이름조차 생소했던 60년대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를 만드셨고 가르쳐 오신 스님은 찬불가의 의미를 되새
기며 실천하는 것도 기도나 열부 못지 않은 중요한 생활속의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이의 맑은 불성 어른까지”

스님이 출가하신 1940년대만 해도 스
님들은 참선과 기도 등을 통해 중생제도
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수행자의 삶이었
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이 어린이 찬불
가를 포교 방편으로 삼으신 특별한 계기
가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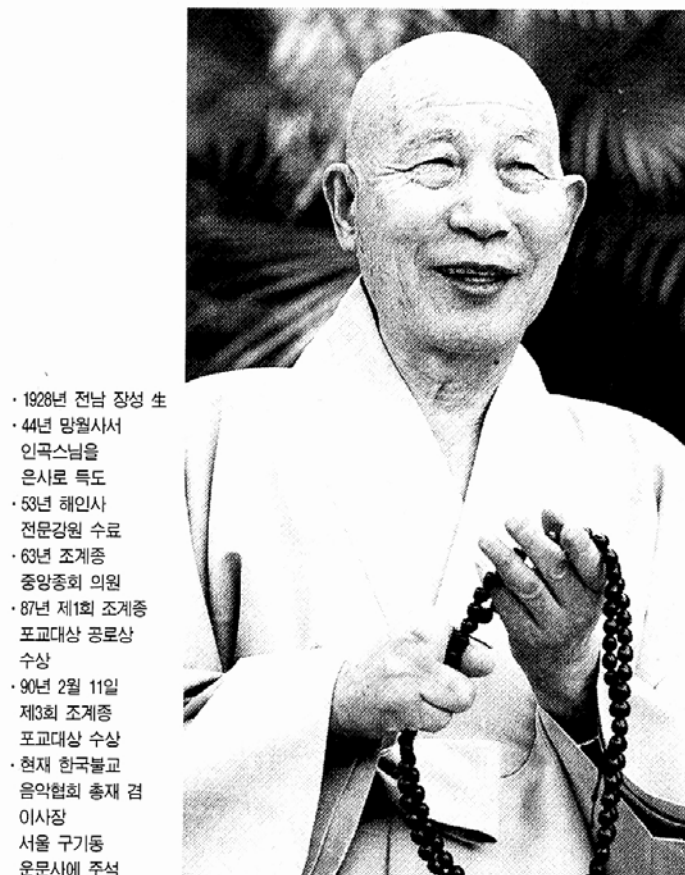
▲6.25 전쟁이 끝난 1955년경으로 불교
정화 직후였지요.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
서 공부하고 있는데 종단에서 속가 고향
인 전라도로 내려가 포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 도반들 4명과 함께 목포
정혜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포교를 하다 나주 심양
사 주지 소임이 맡겨져 나주로 거처를
옮겼지요. 선방에만 있다가 막상 주지 소
임을 맡으면서 신도들을 접해보고는 깜
짝 놀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한 신도가
찾아와 스님은 점을 안봐주시냐는 거
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어
요.

신도들을 보내놓고 방에 앉아 곰곰히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중에서 배
운 불교는 이런게 아니다 싶으면서 정신
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두 정법과는 동떨
어진 기복 신앙에만 빠져 있었지요. 이러
게 기복과 주술로 빠지는 것은 어릴때부
터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
문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기성세대는 이
미 그렇게 굳어져 버려 할 수 없지만 어
린이들을 일찍부터 포교하면 그런 생각
을 안할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어린이 포교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
입니다.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
속에는 천진불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맑은 불성을 어른
이 될때까지 계속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
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어린
이 포교 방법이었어요. 지루함을 금방 느
끼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딱딱한 불교
교리만을 가르치면 포교 효과가 적을 것
이란 생각이 들어 음악을 통해 포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법
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그 모임이 화합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길이 '노래'라
고 생각했지요. 특히 부처님 말씀을 흥겨
운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면 언제 어디서



- 1928년 전남 장성 생
44년 망월사에서
인국스님을
은사로 득도
53년 해인사
전문강원 수로
63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6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90년 2월 11일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현재 한국불교
음악협회 총재 겸
이사장
서울 구기동
운문사에 주석

나 부를 수 있어 포교 효과가 클 것이라
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그때 30년 어린이
찬불가 포교봉사의 원을 세웠습니다.

스님이 어린이 찬불가 포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찬불가가 거의 없
었던 해도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
쳐 찬불가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포교를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60년대 초반 목포 정혜
사에 다시와 어린이 법회를 만들 때만
해도 불교 노래는 거의 외국곡에 가사만

바꿔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래서 가사는 분명히 불교적이지만 멜로디
는 찬송가인 것이 많아 어린이들이 혼란
스러워 했지요. 지나가다 만나는 교회에
서 흘러나오는 곡들이랑 똑같은 것들이
많아 어느 것이 진짜 불교 노래냐고 물
어오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당시 목포에
있는 중학교 음악교사인 김재민 선생에
게 가사를 4곡 정도 써주면서 곡을 만들
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들어낸 최초의 창작 찬불가곡이 바로
'경배하세'입니다. 이 곡이 탄생되기 전

까지는 학교 교가를 죽 모아 가사만 찬
불가로 바꿔 부르곤 했지요.

나도 초창기에는 노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작곡에 대한 개념이 없어 교회
곡중에서 오래되고 안슨 것들만을 골라
서 가사만 바꿔 부른 것이 대부분이었습
니다.

그 시절 교회 성가곡들은 일본곡들을
표절한 것이 많아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
라 초기의 찬불가는 일본 성향의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요즘 작
사가들처럼 내 작품하나 근사하게 만들
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부처님 가
르침을 쉽게 널리 보급해야겠다는 마음
뿐이었지요.

이러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찬불가 제
작에 들어갔던 것은 대구 관음사 주지로
있을 때 기타 전문가인 추월성 선생을
만나면서 부터입니다. 추월성 선생을 모
셔다 관음사내에 방을 마련해 주면서 내
가 가사를 쓰면 바로 곡을 짓게 하는 등
열심히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
구 관음사에도 어린이 법회가 있었던데
마을 애들이 절에 와서 법회를 하고 집
에 들어가면서 내가 만든 찬불가를 부르
며 즐거워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
합니다.

노랫말을 만드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의 길이라 상당한 고통이
따를 텐데, 스님께서는 대략 6백여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많은 곡들을 어떻게 만드셨는 지
알고 싶어요. 창작이 잘 안될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나는 가사를 짓는데 내 개인적인 감
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옮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
니다. 우선 노랫말을 짓기 전에 경전과
계승을 갖다 놓고 뒤져봅니다. 이러다가
감명을 받은 조사 스님의 계승을 인용해
지는 곡들도 많지요.

경전을 오래 읽고 그 의미를 곰씹다 보
면 노랫말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입속에서 계속 맴돌던 말들을 종이에 붓
가는대로 적어 놓으면 노래가 돼요. 하지
만 가사를 쓰는 것도 창작인지만 안써질
때도 많습니다.

갓바위 소원성취 달마도
스님의 채색 전신 달마도!!!
소장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신비의 달마도!!!
규격 38x25cm
규격 35x130cm
규격 35x70cm
사업성취 소원성취 수액자판
특별보급가 6만원
▶ 사업 실패, 가정불화,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부동산 매매
▶ 수능시험, 국가고시, 자격시험, 승진시험, 담담하고
초조하신 분 망서리지 마시고 전화 하십시오
지장선원
(053)982-4976 / (011)813-3679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민택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인네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남 130,000
바지, 조끼 여 130,000
누비 남 180,000
(상,하) 여 180,000
방한복 남 130,000
(상) 여 130,000
바랑 대 30,000
중 25,000
※이시종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섬유
대구시 동구 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 / 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기가 쏟아진다.
지압실
(건강양말의 섬유구조)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액순환, 향균발생
· 원작의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 건피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숙취해소
· 원작의선 차단
숯양말 실으면!!
장노예는 양이 안오듬
울주석 선물은 건강 숯 양말로!!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 전시판매장소 :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